

미 국민, 경제 불안 심리 고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의 경제 악화 우려와 코로나19 악재로 40%를 겨우 넘는 성적표를 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CNBC 전미 경제조사(AAES)가 지난 14일~17일 미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5%포인트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1%로 조사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였다. 지난 7월 조사에선 지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역전됐다. 당시 지지한다는 48%, 지지하지 않는다는 45%였다.

이것은 경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 심리가 부쩍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경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실제 경제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급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0%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54%로, 7월 조사보다 7%포인트 높아졌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전 조사 때보다 16%포인트 상승해 코로나19 이슈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시각을 키우고 있다. 응답자의 46%가 향후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해 여론조사 13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47%는 내년에 경기 불황이 올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졌던 때보다 13%포인트 증가한 것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지금이 주식 투자 적기라는 응답은 31%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조사에선 미 국민들이 공급 병목과 노동력 부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난다. 절반이 넘는 60%가 식료품과 종이제품, 청소용품 등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답했고, 66%는 상시적으로 열린 장점이 일부 낱자 또는 시간대에 문을 닫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탱했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여론도 동반 악화했다. 찬성 50%, 반대 45%로 지지한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지만 7월 조사 때 찬성 53%, 반대 38%였던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다.

노동력 부족에 노동자 목소리 커졌다

미국의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면서 노동자들의 힘이 세지고 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거나 새로 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19일 '연합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워싱턴포스트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코넬대 노사관계대학원 집계 결과 올해 들어 미국내 178개 회사에서 파업이 발생했다. 지난 8월 1일 이후 발생한 파업만 40건에 육박한다. 이는 전년 동기의 두 배에 가깝다.

농기계와 중장비를 만드는 존디어 근로자 1만 명이 지난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시리얼 브랜드로 유명한 켈로그 노동자 1천400명도 파업을 벌이고 있다. 대형 의료기관 카이저 직원 3만1천명이 소속된 노조도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한 상태다. 노동자 우위 지형을 이용해 대기업에서 노조를 결성하려는 시도도 잇따른다. 비록 실패로 돌아갔으나 엘라베마주의 아마존 창고 노동자들이 첫 노조 설립을 추진했고, 스타벅스 바리스타들도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런 움직임은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예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

다. 미 노동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8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8월 퇴직자수는 327만 명으로 지난 2000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대우가 더 좋은 직장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퇴직이 급증한 것이다.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석 달 연속 1천만 건을 넘어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제임스 호프 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런 현상이 노동계에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충분한 임금과 안전 조치를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파업으로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최대 노동단체인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조합회의(AFL-CIO)의 리즈 슬러 의장은 WP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파업들은 고용주들이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못 본 척한다는 사실에 대해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급병목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파업이 더 늘어나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지고 경제 회복이 느려질 것이라 우려를 제기한다고 WSJ은 전했다.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10월 25일 ~ 10월 31일, 2021년

띠별 운세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易學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남자 길일 : 27, 28, 31

여자 길일 : 25, 26, 29, 30



패기와 활기가 넘치는 운세입니다. 따라서 뜻을 세워 노력하면 순조롭게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둥이 소리만 크고 실속이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큰일을 하기 전에는 먼저 목표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겠습니다. 스스로를 수양하고 반성하여야 합니다. 혹 어려움이 생기면 경계망동하지 말고 윗사람이나 동료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하늘 위에서 바람이 부니 곧 비가 내릴 듯하면서도 좀처럼 내리지 않는 격입니다. 모든 사물은 각기 왕성할 때가 있는 법이니, 머지않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비로 변하여 대지를 축축히 적실 것입니다. 스스로의 내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일을 급하게 서두르면 이롭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전○애정○건강△



높은 산이 비바람을 맞는 격입니다. 겨울철에는 다시 봄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스스로의 실력 향상에 주력하고 내부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흐트러진 심신을 바로잡고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법. 경솔하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확장보다는 먼저 내부 관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운세가 왕성하더라도,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왕성한 의욕으로 일을 확장하게 되더라도 경솔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무시하고 함부로 일을 벌이면 실재가 따를 것입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삼가고 좋은 협력자를 구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이제부터 완성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다리면 곧 좋은 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때를 기다려 침착하게 스스로의 실력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좋은 운세이므로 노력 여하에 따라 앞길은 탄탄대로일 가능성이 큼니다. 포부를 크게 가져야 길합니다. 금전○애정△건강○



평소처럼 반복되는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태평스러운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구의 덕을 좇아 자신의 처소를 쉽게 바꾸지 않는 법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며, 허망한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나 형제를 공경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무리하게 일을 벌이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힘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획하는 일은 앞뒤를 잘 살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끔은 복잡한 업무를 떠나 조용한 즐거움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소인배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남의 보증을 서는 것은 위험이 따르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는 격입니다. 어린 기러기가 물가에서 바위로, 육지로, 나무 위로, 언덕 위로, 그리고 구름 속으로 날아가듯이 일의 순서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산 위에서 나무가 조금씩 자라듯이 점진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모하고 경솔하게 일을 진행하면 좋지 못합니다.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못사람들의 선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바른 길을 지키면 무사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손해가 따를 것입니다. 성급하게 일을 벌이지 말고 여유 있게 준비하면서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관망한 다음에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좋은 협조자를 얻고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점차 뜻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모하는 일은 서남쪽이 이로우니 그리로 가면 협력자를 만나서 뜻을 이루게 됩니다.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겠지만 지나친 방심은 금물입니다. 금전○애정△건강○



운수가 대길하니 뜻하는 일을 순조롭게 이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결이 잘되므로, 새로운 계획에 착수하여도 순풍에 돛단 듯 어려움 없이 발전합니다. 겉으로는 유순하고 안으로는 견실하니 불만이 없는 모습입니다. 포부를 크게 갖고 성심으로 노력하면 더욱 길합니다. 그러나 교만과 나태에 빠지기 쉬우니,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위아래의 화합에 힘써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하던 일을 지키고 스스로의 분수를 지켜야 하는 격입니다. 산이 한곳에 머물러 있듯이, 부동심으로 지조를 지키고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경솔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장래를 위하여 실력을 쌓는 것이 상책입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진퇴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출 때에는 멈추고 행할 때에는 행하며,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